

노령화 시대엔 월지급식 상품이 대세

투자자가 수익률 지정... 원본 까먹을 수도



정철진의 도전! 재테크

매일경제신문에서 10년간 재테크 전문기자로 활동하다 재테크 컨설팅 및 스토리텔링 사업가로 제2의 인생 시작. 저서로는 국내에서 80만 부 팔린 재테크 서적 <대한민국 20대 재테크에 미쳐라>를 비롯해 <투자, 음모를 읽어라> <주식투자, 이기려면 즐겨라> 등과 작전주 이야기를 다룬 장편소설 <작전>이 있음. 현재 SBS CNBC '생방송 경제투데이' 앵커 및 SBS 라디오 러브FM에서 '정철진의 스마트경제' 진행자로 활약하고 있다.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든 ‘월지급식’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야 팔려요.”

금융 일선에서 돈 많은 주요 고객, 즉 VIP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프라이빗 뱅커(PB)들의 한결같은 전언이다. 작년 초부터 일기 시작한 월지급식 펀드의 인기가 여전한 가운데 ‘월지급식 랩(wrap)’ ‘월지급식 추가연계증권(ELS)’ ‘월지급식 부동산 펀드’ 등 너도나도 월지급식 간판을 내건 금융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월지급식이 이처럼 높은 인기를 누리는 배경에는 노령화가 자리하고 있다. 애초 월지급식이 유행하기 시작한 곳이 일본이라는 사실에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안정성과 유동성이 두루 높은 월지급식 금융상품이 노령화 사회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수익률은 썩 높지 않더라도 매달 일정한 수준의 이익(이자 또는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게 월지급식의 가장 큰 특징으로 안정이 강조되는 노후생활에 제격인 금융상품이다.

월지급식 펀드는 이전에도 있었다. 먼저 목돈을 투자한 후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는 식으로 요즘의 월지급

기존 펀드와 비슷하다. 다만 요즘 유행하는 월지급식은 매월 지급받는 수익률을 투자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투자자는 원금의 0.1~0.7% 사이에서 월지급액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맡기고 지급률을 0.7%로 정하면 매월 70만 원씩 받는다.

장단기 위험 분산으로 연 6~8% 겨냥

따라서 월지급식 펀드는 주식보다는 안정적 이자가 확보되는 채권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브라질, 호주 등 해외 채권에 투자하는 월지급식 펀드가 많이 판매되고 있다. 채권투자수익과 더불어 환차익까지 겨냥하고 있다는 게 색다른 점이다.

월지급식 펀드가 인기를 끌자 증권사들과 투자자문사들은 기존의 자문형 랩 상품을 월지급식 형태로 운용하고 있다. 특정 기간을 계약한 후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이 경우, 위험이 높은 주식 투자만으로는 월지급식을 맞출 수 없으므로 투자자문사들은 대부분 장단기 자산 배분 전략을 채택한다. 즉, 단기에는 저(低)위험자산, 장기에는 고(高)위험자산으로 투자자산을 분산시켜 연 평균 6~8%의 수익률을 맞춰 나간다는 구상이다. 투자자들은 매달 이 정도 수준의 월지급금을 받고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는 것이 목표다.

월지급식 ELS도 인기다. 기존의 ELS는 3년 정도의 계약기간에 3~6개월마다 중간 평가를 실시해 수익을 지급하거나 유지하는 방식이지만 월지급식 ELS는 조건에 따라 매달 수익이 지급된다. 설령 만기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사전에 받은 수익금을 통해 손실분을 만회하는 구조로 짜여졌다.

월지급식 ELS는 특히 거액 자산가들에게서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은 수익이 매월 지급되는 방식으로 쪼개지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년짜리 ELS의 만기 시점에 30~40%의 수익이 한꺼번에 발생할 경우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넘어 곧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수익 발생 시점을 분산시켜 두자는 계산이다.

하반기엔 월지급식 패키지 상품도

하지만 월지급식 상품에 대해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실이 있다. 아무리 월지급식이라고 할지라도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성과에 따라 수익률 편차가 존재하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라는 점이다. 매달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분명히 매력적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투자 성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수익이 나면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원금에서 분배금을 먼저 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을 투자해 원금을 회복하는 방식이므로 운용 성과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성과가 나쁘면 그냥 원금을 까먹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재테크 전문가들은 손실 가능성을 염두에 두라고 조언한다. 은퇴 준비 상품으로 월지급식 펀드에 모두 걸기를 감행하는 것은 위험천만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다.

올 하반기에는 월지급식 펀드, 월지급식 랩, 월지급식 ELS 등을 한데 묶은 상품도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공학기법을 도입해 원금 손실은 최대 -5%~10% 정도로 묶고 은행정기예금 금리 이상의 수익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중금리보다 2~3% 포인트 정도 높은 목표수익률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월지급식 펀드가 인기를 끌자 증권사와 투자자문사들은 기존의 자문형 랩 상품을 월지급식 형태로 운용하고 있다. 특정 기간을 계약한 후 매월 일정액을 지급 받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사진제공_삼성증권